

인간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방안*

백낙천**

-차 례-

1. 머리말
2. 본문
 - 2.1. 인간의 특성
 - 2.2. 인간의 교육적 활용 가치와 방안
3. 맺음말

* 본 논문은 2022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교수

[국문 초록]

본고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실용된 분야인 언간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필사 자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축적된 언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언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언간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언어와 삶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언간의 특성으로 첫째, 언간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모습을 보여주고, 둘째, 언간은 고유어 및 일상어가 풍부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구어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며, 셋째, 언간에는 관용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고는 언간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닌 이유로 첫째, 언간 자료는 선조들의 사적이고 생생한 국어생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고, 둘째, 언간 자료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으며, 셋째, 언간 자료는 한류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언간, 언문, 국어생활사, 교과서, 한류, 문화콘텐츠, 교육적 활용

1. 머리말

한글이 창제되고 1446년에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은 규범서로서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행되었으며, 1447년에는 첫 번째 한글 문헌인 <용비어천가> 및 <석보상절>이 간행되었고 1448년에는 <동국정운>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1461년에는 간경도감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경 언해서의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16세기에는 지방 사찰에서의 불경 언해서 간행이 한글 보급을 이끌었으며, 교정청을 중심으로 경서 언해의 편찬이 이루어지면서 한글의 보급은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내훈>을 비롯한 여성 교육 관련 문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교화서가 지방에서까지 편찬되면서 한글은 문자 생활의 전면에 서서히 부각되기에 이르렀다.¹⁾ 이러한 한글 문헌의 간행과 맞물려 필사 자료이기는 하지만 16세기 후반부터는 여성에 의한 한글 사용이 언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²⁾ 따라서 한글은 창제 직후부터 조선 후기까지 왕실 여성과³⁾ 사대부가 여성들에 의해 그 명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그 사용 대상이 급기야 평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간이 있다. 언간은 왕실 여성 및 사대부가 여성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적 영역의 문자 생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실용된 분야인 언간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필사 자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축적된 언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언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언간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언어와 삶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1) 당시 한글의 사용과 보급으로 우리말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논의는 백낙천(2021) 참조.
 - 2) 2011년 5월 21일 학계에 보고된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 2건은 변방에서 남편인 나신걸(1461-1524)이 아내인 신창맹씨에게 1490년대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본다면 15세기 후반에 이미 한글이 지방에까지 보급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3) 이때의 왕실 여성의 구성원에는 왕비나 빈, 공주 외에도 범위를 확대하면 궁중 나인들도 해당된다. 백두현(2004)에서는 궁중 나인들에 의해 언간이 쓰였다는 사실을 실록의 기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 본문

2.1. 언간의 특성

언간은 조선시대에 한글로 쓰인 편지를 가리킨다. 이때의 ‘언(諺)’은 언문 곧 한글을 가리키며, ‘간(簡)’은 원래 종이를 대신하여 쓰였던 대쪽이나 얇은 나무쪽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찰(簡札)’ 곧 편지를 가리킨다. 이 언간은 한글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언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16세기 이후부터 양반가나 왕실 여성들에 의해 한글 사용이 매우 보편화되었으며, 이후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한글 사용이 언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언간 자료의 발굴과 소개는 이병기(1948), 김일근(1986)에서 시작되면서 언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⁴⁾ 이후 옛 무덤에서 언간이 출토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역주 작업이 조항범(1998), 백두현(2003)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일련의 역주서(2005, 2009)가 출간되었다. 또한 왕실 언간에 대한 역주서가 이기대(2007), 이승희(2010)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황문환 외(2013)에서는 언간 총 1,465건에 대한 판독 자료를 집성하여 기초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⁵⁾

한편, 언간 자료는 흘림체로 쓰여 있어 판독이 쉽지 않고 자료의 출처와 경위가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보니 그동안 학계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판본 자료의 보조적 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허용(1989:57)에서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을 16세기 국어 기술에서 자료로 제시하고, 이기문(1972:155)에서는 주격 조사 ‘-가’의 문헌상의 최

4) 이병기(1948)에는 70건의 언간이 판독문과 함께 간단한 주해가 실려 있고, 김일근(1986)에는 왕실 언간, 사대부 언간, 추사 언간 등 총 299건의 언간을 집성하여 소개하였다.

5) 언간 자료의 현황 및 연구사적 검토는 이래호(2015)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초 출현은 16세기 후반에 송강 정철 자당 안씨가 쓴 언간에서 비롯되었다고 기술하면서 언간의 자료적 가치가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언간이 국어사 자료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언간 자료가 학계에 공개되고 또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관독이 이루어져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면서 최근에는 언간 자료를 국어학 연구의 1차 자료로 삼아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⁶⁾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언간의 특성을 황문환(2002)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황문환(2015)에서는 언간에 대한 논의를 적극 확대하고 종합하면서 언간이 국어사 자료로서 갖는 특성과 가치를 기술하였다.⁷⁾ 이를 통해 밝혀진 언간의 특성을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언간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모습을 보여준다. 언간은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여성과 관련되며, 판본 자료인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 언간 자료는 번역을 전제하지 않아 당시의 언해 자료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말 문법 규칙이 잘 드러나 있다. 가령 황문환(2002)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17세기 언해 자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그 어미와 밋 식어미로 더브러(與其母及姑)’에는 우리말에 불필요한 ‘밋’이 있고 ‘밤 들때 미쳐 ㅁ마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밋 밤 들때 ㅁ마니 나가(及夜間潛出)’라고 하여 우리말 어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이는 언해 자료가 한문 원문의 번역에 기인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언간은 고유어 및 일상어가 풍부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구어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1) 자내 여히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내훈디 가고져 하니 날 드려

6) 그런 점에서 언간 자료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조항범(1998), 백두현(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2009) 등에 의해 자료의 역주본이 학계에 제공된 것과 황문환 외(2013)에 의해 관독 자료가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7) 즉, 언간 자료에는 일상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나며(일상성), 언해 자료로부터 자유로우며(자연성), 언간이 구어적 문어의 성격을 보여주고(구어성/문어성), 개인간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나며(개인성), 개인이나 사회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다고(사실성) 하였다.

가소 자내 향히 므으물 초싱 니줄 주리 업스니 아므려 설운 뜨디 ㄱ이 업스니
 <이응태 부인 언간>

(1)은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언간인데, 아내가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아내가 남편한테 ‘자내(>자네)라고 하거나 여격조사 ‘-에게’의 구어적 표현인 ‘한티(>한테)’가 1586년에 쓰인 이 언간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히’에서 볼 수 있듯이, ‘향히여’의 축약형인 ‘향히’가 언간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언간이 다분히 구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송강 정철 자당 안씨가 1572년에 쓴 언간에 ‘춘 구드릭 자니 비가 세니러서 즈로 든 니니’라고 쓰여 있는데, 주격조사 ‘-가’가 나타난 최초의 문헌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언간은 언해 중심의 판본 자료를 보완할 국어사 자료로서 매우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언간에 나타난 어휘와 용례를 목록화하여 사전 편찬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고어 사전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언간 자료에는 관용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언간은 필사 자료라는 점에서 표기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점을 이용한 반복 표현,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에서 나타나는 생략 표현, 언간 특유의 상투적 표현이 자주 쓰인다. 이러한 특성은 언간이 편지가 갖는 형식상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언간에 나타난 필사 표지인 재점의 주된 기능은 언간의 구어적 속성을 필사라는 방식을 통해 드러낸 일종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필사자의 표현을 극대화하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재점을 통한 반복 표현은 강조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⁸⁾

이상 언급한 언간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언간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모습을 보여주며, 둘째, 언간은 고유어 및 일상어가 풍부하게 나

8) 백낙천(2006)에서는 재점의 해석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ㄱ. 경제성의 효과 : 대체로 1음절 동자 재점의 경우에 단순히 반복해서 다시 쓰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수월성을 고려한 일종의 표기상의 투식이다.

ㄴ. 강조의 효과 : 주로 단어나 어근 단위의 반복에서 나타나며, 필사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로서 필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학적 감정 표현이다.

타날 뿐만 아니라 구어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며, 셋째, 인간은 상투적 표현이나 생략 표현이 자주 쓰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2. 인간의 교육적 활용 가치와 방안

지금까지 논의한 인간의 특성은 인간 자료에 드러난 국어학적 가치에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의 외연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생활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본고는 인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간을 국어생활사의 자료로서 갖는 가치를 활용하여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교육이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이 지점에서 국어생활에서 앞으로의 국어의 발전 방향을 살피는 것과 선조들의 국어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말의 변천 과정과 그 모습을 모색하여 국어생활사의 방향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국어생활사라는 명칭은 국어교육의 연구를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김광해(1996)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국어 자료를 분야별로 수집·정리하고 분석하여 ‘국어생활사로서의 국어사’, ‘국어생활사’, ‘언어생활사’ 등 새로운 학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한 이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어생활사의 개념 및 방향과 관련해서 장윤희(2005)에서는 국어에 초점을 둔 국어생활사의 내용과 성격을 논하면서 국어생활사는 그 국어를 이용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모든 활동의 변화로 국어 사용사, 국어 교육사, 국어 정책사, 국어 사상사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장윤희(2005) 논의의 주안점은 국어생활사를 국어사와는 별도의 독자적 영역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과 국어생활사의 내용 영역을 설정하는 데 국어사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본관(2009)에서는 국어생활사를 국어교육에서 수용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어생활사가 국어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면서 국어생활사의 위상을 확인하였다.⁹⁾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국어의 역사적 변천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국어사라고 한다면 국어생활사는 국어를 통한 모든 실용적 국어사용의 변천 과정을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어생활사는 국어사와 생활사가 복합된 형태의 국어생활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지식 내지는 이론 중심의 현재의 문법 교육에서 국어생활사 교육은 국어사 교육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음을 말한다.¹⁰⁾

한편, 백낙천(2007)에서는 인간은 한글의 사용과 저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어생활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기술하면서 문법 교육 중에서도 국어의 옛 모습에 대한 교육은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할 교육적 대안으로 인간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인간은 선조들의 진솔한 삶을 생생한 언어로 담고 있어 구어나 방언이 어느 자료보다 풍부하게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간의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어생활사 교육을 뒷받침해 줄 교육 자료로서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며, 나아가 국어생활사 교육에 대한 이해와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¹¹⁾ 나아가 인간이 가지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가치에 주목하여 이호형(2011)에서는 인간의 교재화 방안을 통해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향을 실제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집필된 **고등학교 교과서인 <국어(상), (하)>**와 **<독서와 문법**

9) 한편, 백두현(2010)에서는 ‘어문생활사’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어생활사’라는 용어는 첫째, 국어 혹은 한글에 한정될 가능성과 둘째, ‘국어’에 초점을 맞추면 국어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자와 한문 및 차자 표기까지 포함하고 언어 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어문생활사’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10) 적어도 학교 현장의 문법 교육에서 국어사 교육을 국어생활사 교육과 구분하거나, 국어사 교육을 국어생활사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국어교육의 내적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 백낙천(2012)에서는 인간의 교육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첫째, 인간은 ‘국어생활사’ 자료로서의 교육적 활용성이 높고 둘째, 인간은 고전 문학 교육 자료의 보완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셋째, 인간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에 유용한 자료라고 한 바 있다.

I, II>에 수록된 인간 자료는 총 9건으로 파악된다. 이 인간 자료들은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단원에 수록된 것인데, 이 중 흥미로운 것은 <이용태 부인 인간>이 교과서 4종에 실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용태 부인 인간>의 수록 빈도가 높은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아내가 남편한테 ‘자녀’라고 하면서 부부간의 애뜻한 마음을 담아 죽은 남편의 관에 넣어 준 사연에 기인한 교육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나머지 8편의 인간이 ‘국어생활의 역사적 흐름’ 또는 ‘한글 사용 계층과 한글 교육’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소개된 것은 인간이 국어생활사 자료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만하다.¹²⁾

교과서에 수록된 인간 자료

번호	인간명	수록교과서	
1	이용태 부인 인간	국어(상)	미래엔(2011, 윤여탁 외)
		국어(하)	좋은책신사고(2011, 민현식 외) 창비(2011, 문영진 외) 천재교육(2011, 김대행 외, 김종철 외)
		독서와 문법 I	미래엔(2012,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II	천재교육(2012, 박영목 외) 비상교육(2012, 이남호 외)
2	인선왕후 인간	국어(하)	금성출판사(2011, 윤희원 외) 해냄에듀(2011, 오세영 외)
3	정조 인간	국어(상)	미래엔(2011, 윤여탁 외)
		국어(하)	금성출판사(2011, 윤희원 외)
4	선조대왕 인간	국어(하)	천재교육(2011, 김대행 외)
5	숙종 인간	국어(하)	지학사(2011, 방민호 외)
6	순원왕후 인간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2012, 윤여탁 외)

12) 물론 수록된 인간의 원문(사진 포함) 전체와 현대어 풀이,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교과서도 있지만, 인간의 일부만 보여주거나 인간 원문 사진만 제시한 교과서는 인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7	완산 이씨 언간	국어(하)	천재교육(2011, 김종철 외)
8	추사 언간	독서와 문법II	비상교육(2012, 이남호 외)
9	현풍 곽씨 언간	국어(하)	지학사(2011, 박갑수 외)

특히, <이응태 부인 언간>은 병환으로 남편이 먼저 죽자 아내가 남편에게 쓴 것으로 500년 전 선조들의 애뜻한 마음이 오늘날 부부간의 정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사연은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고(KBS 역사스페셜, 1998년 12월 12일), 잡지에 소개되기도 하였고(내셔널지오그래픽, 2007년 11월호), 뮤지컬로 창작되기도 하였으며(‘원이엄마’) 또한, 이 언간의 내용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 출간되고(‘능소화’) 기념우표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언간이 1998년 안동시 고성이씨 집안 이응태의 묘에서 출토되어 세상에 알려지자 안동시에서는 ‘원이엄마 테마 공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것은 언간 자료가 한류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어생활사 자료로서 갖는 언간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언간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언간 자료를 제시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언간 자료는 우리 선조들의 국어 생활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서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다. 즉, 언간을 쓴 필자의 상황이나 그 마음에서 선인들의 언어 표현을 찾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데에 쓰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언간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간은 당대의 시대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즉, 언간은 선조들의 사적이고 생생한 국어생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조선시대 한글 사용은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사대부가의 남성들도 한글을 사용했다는 것을 언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언간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며 편지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2) 안부 그지업시 수업시 흐뇌 지브 가 어마님미라 아기라 다 반가이 보고 가고져 하다가 장쉬 혼자 가시며 날 묻 가게 흐시니 묻 가 든너가뇌 이런 민망 흐고 설은 이리 어덕 이실고 군과늘 즈망흐 휘면 내 므오모로 마디 못흐는 거실 쇠 가디 말라 흐는 거술 굿드리 가면 병조의셔 회덕 골로 흥이흐여 자바다가 귀 향 보낼라 하니 이런 민망흐 이리 어덕 이실고 아니 가려 하다가 못 흐여 영안도로 경성 군관 흐여 가뇌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

(3) 글월 보고 무스흐니 깃거흐며 보는 듯 든든 반기노라 날이 폭드록 아마도 섭섭하기 마이업서 흐노라 정승은 상한을 흐여 거시다 하니 년고흐 사름이 더적의 날마다 문안 든니시기에 상흐신가 녀너흐며 안심티 아녀 흐노라 이 감즌는 어디 아닌 거시니 병등의 보내기 열 보내노라 <숙명신한첩 22>

(2)는 현존하는 최초의 언간으로 알려진 것으로 2011년 신창 맹씨의 목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편지로서 납편인 나신결(1461-1524)이 1490년경에 아내인 신창 맹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에는 노모와 어린아이를 보고 싶지만 영안도(함경도) 변방에 나가 있는 군관으로서 장군은 혼자 가면서 자신은 고향에 가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병영을 이탈할 경우에는 병조에 잡혀가 귀향을 보낸다는 부분에서는 당시의 병영 생활의 모습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¹³⁾

(3)은 인선왕후가 딸인 숙명공주에게 보낸 것으로 인선왕후는 인조의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의 부인이다.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나라 선양에 9년간 머물다가 돌아오면서 천주교 교리서와 서구 과학 문명에 대한 지식과 문물을 가지고 오자 당시 조정은 서인을 중심으로 한 반청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지라 소현세자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1645년에 소현세자가 급사하자 인조는

13) 이 언간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신창맹씨 목관에서 복식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배영환(2012)에서 소개하여 학계에 알렸으며, 2023년 3월 9일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3)은 이러한 정치적 시대 상황 속에서 심지원의 아들인 심익현과 혼례를 한 숙명공주에 대해 인선왕후는 사돈이자 서인의 영수인 심지원의 건강이 편치 않자 숙명공주에게 인간을 써서 얼지 않은 감자(柑子, 홍귤)를 보내 사돈의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간은 발신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좋은 학습 자료이다. 인간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일상적 안부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특별한 내용이나 당부를 전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발신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인간이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4) 요스이 아히돌호고 엇디 인논가 아기내는 무스히 왔다 급테 묻흔 이룬 다문 즈시글 길여 그티나 볼가 흐다가 하 이리 마흐라 묻흐니 내 거복혀 영화놀 못 보고 주그리로다 굿브니디 엇디흐리 쏘 채서방이나 흘가 브라고 이시니 엇디호고 <순천김씨묘 출토 인간 15>

(5) 즈식은 년혀 무스호으며 어제 과거 드러 무스히 글 지어 바티고 낫스오니 너일 쏘 드올소이다. 과거히야 하날만 밋습디 어이 기드리오링잇가 브디 밋옴 태연히 흐시고 죠곰도 기들리디 마옵쇼셔 험석이는 당가드오디 그날 비로혀 호스를 극진히 못 호오니이다 <진성이씨 이동표가 인간 17>

(4)는 어머니 신천강씨가 딸 순천김씨에게 보낸 편지로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위(채무이)라도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과거 급제를 못하는 것을 부귀영화를 못 보고 죽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과거 급제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5)는 1677년에 이동표가 어머니인 순천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자식이 과거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머니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혹시나 과거 시험에 떨어질 경우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 것을 미리 염려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셋째, 인간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학

습 자료이다.

(6) 자내 날 향히 므을 었디 가지며 나는 자내 향히 므을 었디 가지던고
 미양 자내드려 내 널오디 혼디 누어서 이 보소 늬도 우리ㄴ터 서르 예엿쎄 너겨
 사랑헿리 늬도 우리ㄴ터가 헿야 자내드려 니르더니 었디 그런 이를 싱각디 아녀
 나를 브리고 몬져 가시논고 자내 여히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내혼디
 가고져 헿니 날 드려가소 자내 향히 므을 츠싱 니줄 줄 리 업스니 아므려 설
 운쁘디 ㄴ이업스니 이내 안홀 어디다가 두고 츠식 드리고 자내를 그려 살려노
 헿노이다 <이용태 부인 언간>

(7) 세후 석달이 되고 쇼식을 듯지 못헿여 스싱존몰을 모로니 혼 세상의 잇는
 보름이 업다 세후 일기도 하 고이헿여 풍설 업는 날이 업스니 엿지 어더 먹고
 죽들이나 아니헿고 사라잇는야 명이월 제스는 다 못 지내실 듯헿니 즈손이 잇단
 말도 못헿고 업단 말도 못헿고 이리 쏘다 광췌셔 쏘말이나 갔다가 먹어는야 나
 는 죽도 사도 못헿고 오도 가도 못헿고 보기 듯기 다 점점 전만 못헿니 세상 실
 로 귀치 아니헿여 즈줄 못 계디겄다 아회는 세전세후 불셔 가라 헿다니 일기와
 길이 고이헿여 이제야 가라 헿나 명일 제을 못 어더가는가 시부니 그져 죽어 모
 로고 시부다 울도 집을 못 니어서는 문허질 거시니 외오셔 빈 녀녀 썬이로다 손
 부는 팔월 후 광췌 가고져 헿다 헿니 이 늘근 쇠한아비는 다시 보도 못홀가 시
 부다 일기나 춘화헿면 배로나 가고 시부되 엿지될지 내 몸이 내닷 어려워 녀이
 로다 <창원황씨 언간 1>

(6)은 1586년 이용태 부인이 죽은 남편의 관에 넣은 편지인데, 1998
 년 안동에서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병
 환으로 먼저 떠나간 남편에 대한 원망과 어린아이들과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
 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겨 사랑할까요? 다른 사람
 들도 우리 같을까요?”라는 대목에서 500여 년 전 부부의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편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하는 그
 리움이 드러난다. 즉, 병석에 있는 남편이 죽자 아내가 남편에게 쓴 것
 으로 죽음을 애도하고 부부의 정을 보여주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유의
 한 자료일뿐더러 문학적으로도 실기류 여성의 글쓰기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7)은 객지에 나가 있는 시아버지가 집안의 며느리와 손자며느리에 게 함께 보낸 것으로 남성의 언어이지만 당시의 처지와 발신자 자신의 곡진한 심정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자신의 처지가 ‘죽도 사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다는 것과 ‘세상 실로 귀치 아니하여 즈를 못 계디겟다’는 표현에서는 아마도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이제는 늙어서 남은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인생의 깊은 절망감에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으로 될지도 모를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은 오늘날과 비교하여 덜하지 않다. 인간은 이러한 가족 간의 애절한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인간 자료는 의식주 관련 생활 전반과 관례, 혼례, 상례 등 민속 관련한 선조들의 인식과 전통문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고전 문학 교육 자료의 보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가령, 고전 문학 교육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작품들은 시가 문학과 소설 문학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기류 그중에서도 인간 자료는 방대한 자료가 있으며, 최근 이들 자료의 결집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인간 자료를 역주하고 현대어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 고전 문학을 보완해 줄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백낙천(2007)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간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학습자가 문학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인간의 교수-학습은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글쓰기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장(行狀)과 달리 많은 경우 여성 자신이 필사자인 인간의 언어는 진솔하고 때로는 격정적이며 고백적인 문체를 보여준다. 특히, 인간 안에서도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의 문체와 문장의 길이, 고유어 어휘의 사용 빈도, 독백식, 고백식의 개인의 감정 표현 등에서 일정한 대립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어의 산문 문체 형성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8) 손반 발 드린 것 여섯만 보내되 그 점 반 미티 댁중이라 하여 서 보내고
 뉘등경 하나 나모등경 하나 하여 둘홀 보내되 나 이실 제 보내려 내엿던 등경드
 를 보내라 호소 새 징시 니블 블근 옷 둘 점 보내고 차일도 차양집의 드라 잇더

니 그 점 아기 하여 도너르 거시라 서서 보내고 면판도 보내소 면도 그장 도케
 락마라 보내고 만도 점 그장 도케 락그라 보내소 횡고기 점 너일 근심이 올 제
 락덕과 조차 가더오라 호소 <현풍곽씨 언간 73>

(9) 가 비와도 동기간드리에 당연호오는 가스 골물호와 집 듯날 날리 업스니
 고로 가 비웁지 못호웁고 안만 올바임 오실갓 누날리 바리고 드달리 바리도 쇼
 식조차 돈결흔니 여즈된 한니 무궁무진니로쇼이드. 언지느 저의 집의 한 번 오
 실난디 연식은 점점 만하시고 저의 집을 오실갓 바리온니 슈이 한 번 와 당여가
 압시고 저작연 십월순의 호도 훌훌리 비별호온니 올바임 하도 섭섭하기 그지업
 스와 집을 도라와 싱각한니 후회가 그지업스오느 어는 스람들은 동기간 인정이
 유두호여서 자쵸 왔다 갔다 호는 거슬 보온니 부릅기 그지업서 우리 올바임은
 언지느 저를 차차 오실는지 보고 십기 그지업고 만너보기 한니로쇼이드. 공산의
 두견쵸야 불여귀을 찾지 마라 우리 친정 가고 십호 느의 소리 듯기여 너 심스
 들 락 업다 <순흥안씨 언간 4>

(8)은 곽주가 아내인 진주하씨에게 보낸 것으로 혼례를 위한 준비 사
 향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즉, 혼례에 쓸 도구와 신랑이 입을 의류 및
 혼례에 쓰일 음식까지 제시하고 있어 혼례를 집안의 큰일로 여기는 선
 조들의 인식과 전통문화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9)는 여동생이 오라버니에게 보낸 편지로서 엄한 시집살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
 퍼하면서 시집오기 전에 자신을 끄찍이 여겨주었던 친정 오라버니에게
 보낸 편지이다. 특히 그 감정이 고조되는 후반부의 내용은 내방 가사의
 3(4)·4조 운율과 투식이 닮아 있기도 하다.¹⁴⁾

다섯째, 언간 자료는 한글의 사용과 보급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10) 즈식드란 여러히 갓스오니 우연히 요란히 너기웁시거나 호웁노이다 수
 이 드려오웁고더 호오오디 그려도 당시는 의심이 깃디 아니 호오오마 이드리나

14) 실제로 인생무상을 토로하는 일종의 歎老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불교 가사 ‘빅
 발가’에는 언간 두 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언
 간 자료 (9)는 가사와 언간의 장르 교섭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디나옴거든 드려오려 호읍노이다 아으 즈식 둘란 게 갖습는 제 언문 그르쳐 보
내읍쇼셔 슈고롭스오신 언문 그르치읍쇼셔 호읍기 젓스와 호읍다가 알외읍노이
다 <현풍곽씨 언간 2>

(11) 가운대 아기 언문 쾌히 비훤다가 내게 비라 호소 셋재 아기도 이제는 쾌
히 성호여 이실 거시니 언문 외와 싯다가 비라 니르소 아마도 아히들 드리고 편
히 겨소 <현풍곽씨 언간 39>

(10)은 1612년에 곽주가 장모에게 쓴 편지이다. 특히 외가에 가 있
는 자식들의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장모에게 거듭하고 있다. 이
언간이 쓰인 시기는 적어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166년 후인 17세기
초반(1612년)으로 이때에는 사대부가 여성들이 한글 사용이 익숙했고
더욱이 한글 교육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녀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언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도 언간이 쓰
였다는 것으로 보아 한글 교육과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11)은 곽주가 부인 진주하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내용에는 아이들
이 한글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즉, 아이
들의 한글 교육에 양반 계층의 아버지도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일 정도
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제시한 언간 자료들은 관독과 역주가 이루어진 것들
이다. 이러한 언간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문화적 수요에 적절
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집성과 목록화 및 말뭉치 구축 등의 전
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독문과 함께 원본 이
미지가 제공될 때 언간 자료의 활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간 자료가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고 소개되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와 삶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당대의 상황을 이해하
는 데에 언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사실, 문법 교육 무용
론이 제기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언간 자
료가 지닌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창의적 언어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동기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한 공동체
의 역사적 맥락 이해와 그 공동체의 핵심적 문화 요소로서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간 자료의 교재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교육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학습 자료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백낙천(2012)에서는 다음의 5가지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자료를 선정한다.

둘째, 자료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선정한다.

셋째, 글자의 모양이 아름답고 필사자의 숨결이 잘 느껴지는 자료를 선정한다.

넷째, 보편적 정서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을 선정한다.

다섯째,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토속적인 일상어를 잘 보여주는 자료를 선정한다.

위의 5가지 기준은 인간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인간 자료를 소개하고 실제 단원 구성을 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소개된 인간 자료는 이래호(2015)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것만 보더라도 3,000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인간 자료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학습 활동 자료로 재구성되고 이를 국어생활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¹⁵⁾

15) 류진아(2010), 최유미(2013), 정혜인(2014) 등의 연구에서 인간을 활용한 국어사 또는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정혜인(2014)에서는 협동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 계획을 시도하였다.

3. 맺음말

본고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실용된 분야인 언간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필사 자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축적된 언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언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언간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언어와 삶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는 언간의 특성으로 첫째, 언간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모습을 보여주고, 둘째, 언간은 고유어 및 일상어가 풍부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구어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며, 셋째, 언간 자료에는 관용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본고는 언간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닌 이유로 첫째, 언간 자료는 선조들의 사적이고 생생한 국어생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고, 둘째, 언간 자료는 의식주 관련 생활 전반과 관례, 혼례, 상례 등 민속 관련한 선조들의 인식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으며, 셋째, 언간 자료는 한류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언간 자료에는 당대의 실상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개인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 국어생활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좋은 교육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언간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창의적 활동의 개발이 촉진되어 본고에서 제기한 언간의 교육적 활용 가치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application of Eongan materials

Baek, Nakcheon(Paichai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application of Eongan materials, and this paper was written with purposes to study trends and research in education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life. Especially, through this paper, I could explain characteristics of Eongan, and then significance of Eongan research, educational application methods of Eongan materials, and practical aspects of Eongan materials.

In fact, Eongan have not been made the best use for research due to the difficulties in deciphering and interpreting them. However, books of translations with notes on the Eongan have sprung up since the 1990s.

I suggest that positively promote the discovery of new Eongan and search on its educational application in the future. I believe that this articles provide with moment of productive discussions, and hope my suggestion in this article be developed more educational appli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Eongan, Vernacular script,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Textbook,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Educational application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일근, 『언간의 연구』, 건국대 출판부, 1986.
백두현,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
이기대, 『명성왕후 편지글』, 다운샘, 2007.
이기문,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1972.
이병기, 『근조내간선』, 국제문화관, 1948.
이승희,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푸른역사, 2010.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허 응,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989.
황문환 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 역락, 2013.
황문환,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언간』, 역락, 2015.

■ 논문

- 구본관,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009, 1-48면.
김광해, 「국어 발전의 양상」, 『선청어문』 24,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6, 123-146면.
김유범,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법과 교재」,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009, 49-64면.
김은성,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 국어연구소, 2007, 437-468면.
류진아, 「언간을 활용한 국어생활사 교수-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0, 1-92면
배영환, 「현존 最古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2012, 211-239면.
백낙천,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의 형식과 내용」,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2006, 161-195면.
백낙천, 「국어생활사 자료로서의 인간의 특성」,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183-198면.
백낙천, 「언간 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모색」, 『인문논총』 29, 배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16-26면.
백낙천(2021), 「어문 의식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 『동악어문학』 85, 동악어문학회,

2021, 259-290면.

백두현,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139-187면.

백두현, 「어문생활사로 본 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2010, 41-72면.

이래호(2015), 「조선 시대 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2015, 66-126면.

이호형, 「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011, 503-536면.

장윤희,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문학 작품의 가치」,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2005, 107-132면.

장윤희,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009, 287-311면.

정혜인, 「인간(諺簡)을 활용한 국어사 교육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4, 1-135면.

조용림 · 백낙천, 「인간을 활용한 국어 생활사 교육 방안」, 『국제언어문학』 30, 국제언어학회, 2014, 165-186면.

최유미, 「인간 자료의 국어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3, 1-228면

황문환, 「조선 시대 인간과 국어 생활」, 『새국어생활』 12권 2호, 국립국어원, 2002, 133-145면.